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인들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바르톨로메오와 성 바르나바 사도

제8조 /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응송 / 12, A 34
- 제8조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모든 성인들의 찬양송 / 269, B 341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시기송 / 269, B 342
- 사도경 : 히브리 11, 33-12, 2 / 269, 봉독서 114
- 복음경 : 마태오 10, 32-33, 37-38, 19, 27-30 / 108, B 34
- 성모송 / 27, A 75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영성체송 / 270, B 34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진정한 겸손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희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고 겸손해 지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거룩한 겸손을 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사탄적인 겸손입니다. 거룩한 겸손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

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은 스스로를 잘 준비하면서, 하느님께 거룩한 선물을 간청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결점이 있으나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 스스로 투쟁하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십시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



에톨리아의 성 코즈마 사제순교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저울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 저울로 우리를 다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 저울이란 사랑을 달아 보는 저울이라는 것이다. 성인은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법은 두 가지의 사랑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다.

‘새가 한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두 가지의 사랑이 다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 하셨다.

“당신들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목동이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양젖으로 만든 치즈를 눈대중으로 팝니까? 아니면 저울에 달아서 팝니까?” “물론 저울에 달아서 팔지요!” 목동의 대답에 성인은 말쑥을 이어갔다.

“좋습니다. 그대는 치즈를 달지만 나는 그대의 사랑을 달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물론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합니까? 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성당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에 응답합니까? 성 삼위의 이름으로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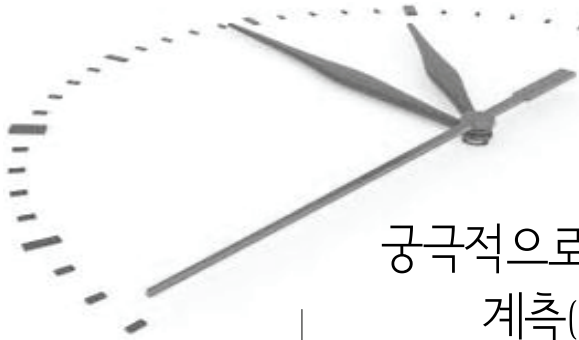
례를 받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까? 그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데 대해 그리고 그대의 가정에 내려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 성호를 그으며 감사드립니다까? 만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이웃의 어려움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을 움켜쥐고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며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까? 아니면 관심조차도 가지려 하지 않고 실컷 먹고 마시며 못 본 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인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다. “이 정도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우리를 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저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자세로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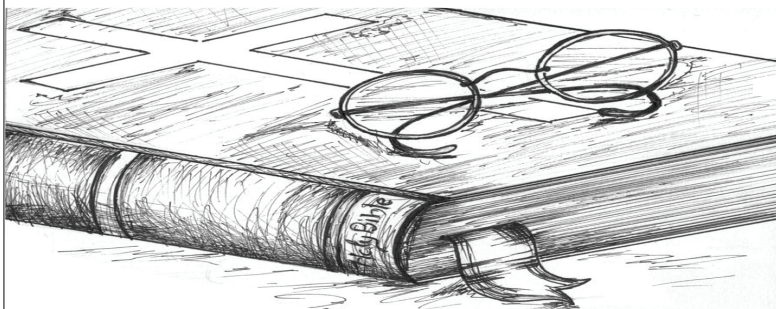
공극적으로 삶은 계측(計測)이고 측정(測定)이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첫 걸음들을 재면서 시작한다. ...
다음으로 우리는 숫자들을 센다. ...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첫 '수'나 'A 플러스'를 헤아린다. ...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이런 저런 기억
들을 헤아린다. ...
우리는 시간을 헤아린다. ...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계산한다. ...
우리는 경험들과 잘못들, 힘, 인내, 승리한 것들을 헤아린다. ...
우리는 두려움들 ...
여러 상(像)들 ... 여행의 기억들을 헤아린다. ...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을 헤아리고, 또 때로는 우리 옆의 사람들을
헤아린다. ...
우리는 우리의 꿈들을 헤아린다. ...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헤아린다. ...
그리고 이 헤아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측정했는지 또는
잘못 측정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아타나시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 축하를 드리며 총대주교님께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 우리의 정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성화 전시회

지난 6월 5~7일까지 가평에 있는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소존 야누디스 교수께서 약 한 달 반 동안 성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크신 분들과 함께 진행한 성화 수업의 결과물인 작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특히, 5일(월)에는 소티리오스 대주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미국에서 오신 Martin Ritsi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가 참석한 가운데 성화 전시회 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간단한 기도식을 거행하고 Martin Ritsi 신부와 소존 야누디스 교수께서 성화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충일을 기해 한국전쟁 참전 그리스도 전몰 용사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공연을 감상하고 성화 전시장에서 그동안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CBS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나왔습니다.

■ Martin Ritsi 신부 방문

지난 6월 2~6일까지 미국에서 Martin

Ritsi 신부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Martin Ritsi 신부는 미국의 정교회 선교센터(OCMC) 회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정교회와 OCMC와의 선교 협력에 대해 논의하시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업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봄 바자회 결산

지난 6월 4일 오순절 성령강림 대축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예년처럼 한국,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교인분들이 참여하면서 풍성한 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이웃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성당에 들어와서 정교회에 대해 안내를 받으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바자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장년회와 신데즈모스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